상 담 학 연 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3, Vol. 14, No. 6, 3557-3574

완벽주의 성격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자기불일치, 편견, 외적 동기를 중심으로-

하 정 희†
한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배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 이 가운데 '개인수준 차이 이론(Leong, 2008)'에 따르면, 문화 간 접촉이 모든 사람에게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 지니는 가치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며 이것이 자신의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은폐하고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소수집단, 즉 다문화 가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을 함께 탐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A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 431명을 대상으로 하여 완벽주의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불일치와 편견, 외적 동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완벽주의 하위차원 가운데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모두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밀접하게 관련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기불일치, 편견, 외적 동기의 변인들과 각각 다른 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완벽주의, 자기불일치, 편견 관련 변인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편견 및 외적 동기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주요어 :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완벽주의, 자기불일치, 편견, 외적 동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하정희 /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과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Tel: 02-2290-0341 / E-mail: hajung366@hanmail.net

www.kci.go.kr

서 론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갖는 특성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아울러 이들의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Katz(1960)는 사람들이 어떠한 대상 혹은 집단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에 대해 태도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즉, 태도가 지식기능, 가치표현기능, 자아방어기능, 실용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다문화가정에 대해 갖는 사람들의 태도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늘린다던지 혹은 자신의 가치나 확신을 표현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지만, 자기에 대해 위협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어적인 태도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김혜숙, 2007, 재인용).

다문화가정에 대해 특정한 근거 없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편견적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데, 편견은 흔히 특정 집단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 등으로 표현된다(정기선, 1999; 정기선, 2003). 편견의 내용은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진 실체로 존재하여 사회생활 전반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므로(박수미, 정기선, 2006) 차별 등과 같은 개인의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편견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나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의 하나로서 개인의 성격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인수준 차이 이론(Leong, 2008)'에 따르면 문화 간 접촉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위협을 느끼는 것은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즉, 각 개인이 지니는 가치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며 이것이 자신의 태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 특성 가운데 '완벽주의'를 상정하여, 완벽주의 성격 가운데 '타인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다문화가정과의 연관성을 전제로 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완벽주의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 가운데, Hamacheck(1978)는 완벽주의를 자신과 타인에게 상황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행의 질을 부여하는 경향으로 설명하였는가 하면,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를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oriented perfectionism)'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울과 관련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Hewitt & Flett, 1993) 강한 내적 동기와 관련되며 대체로 적응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Flett, Hewitt, Blankstein, & O'Brien, 1991). 다음으로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중요한 타인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등의 특성을 갖는다. 이는 완벽주의의 방향이 외부로 향한 것으로서, 이 같은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비난, 적개심, 신뢰감 결여 등의 특성을

www.kci.go.kr

나타내며 대인 관계에 있어 냉소주의와 외로움, 결혼생활 및 가족 간의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Hewitt & Flett, 1991, 하정희, 2006, 재인용).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의미 있는 타인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고 엄격하게 평가하며 완벽하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지각하거나 그렇게 믿는 것과 관련된 대인적 차원이라 할 수 있다(Hewitt, Flett, Turnbull-Donovan, & Mikail, 1991). 이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에 의해 주어진 기준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여 이를 염려하고 두려워함으로써 분노, 불안, 실패감, 무망감, 우울, 불안, 성격 장애 등의 광범위한 부적응적 심리상태를 경험한다(하정희, 2012; Flett, Hewitt, Blankstein, & Mosher, 1991; Pacht, 1984; Hewitt & Flett, 1991; Hewitt, Flett, & Turn bull-Donovan, 1992; Saboonchi & Lundh, 1997; Shahar, Blatt, Zuroff, & Pilkonis, 2003). 이뿐만 아니라, Flett 등(1996)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빈약한 심리사회적 적응, 높은 수준의 고독, 수줍음, 부정적 평가에의 두려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존감(social self-esteem)도 관련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들 완벽주의 차원들 가운데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비난하는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물론, 개인내적 차원과 대인간 차원에 일관되게 부적응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사회적 소수, 즉 다문화가정에 대해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경숙(2013)은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개방성, 수용성, 융통성을 다문화에 대한 태도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현미(2013)는 완벽주의적 성격과 민경숙이 설명한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다루면서, 완벽주의는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필요한 요소들에 상반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최근에 하정희(2013)의 연구를 통해서도 완벽주의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비난하는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인 다문화 가정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대중들에게 은폐하려고 하여 자신이 지각한 결점을 인정하거나 의논해야 할 상황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완벽함의 기준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으므로 타인의 평가에 더 예민하게 되어 불안해진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이 타인을 평가할 때 역시 자신의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은 외적으로 불완전해 보이는 사회적 소수자, 즉 다문화가정에 대해 편견을 갖기 쉽다는 것이다(하정희, 2013).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An 등(2010)은 사회적 소수자로 볼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완벽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모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의 관련성이 더욱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이현미(2013)의 연구에서, 완벽주의의 하위차원들이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중다회귀분석을

www.kci.go.kr

통해 살펴본 결과, 완벽주의의 하위차원 가운데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편견은 물론,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완벽주의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할 때, 완벽주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자기불일치, 편견, 외적 동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불일치는 자신이나 중요한 타인이 바라는 이상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의 모습에 있어서의 차이, 또는 자신이 꼭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적 자기와 실제적 모습 간에 나타나는 불일치를 일컬으며(Higgins, 1987), 전반적인 개인의 심리적 불편감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김영수, 신희천, 2012, 재인용; 이수란, 이동귀, 2008; 임일모, 조용래, 김학렬, 1995; Higgins, Bond, Kein & Strauman, 1985, 1986). 자기불일치와 완벽주의 간의 관련성을 고려해볼 때, 타인에 의해 과도하게 높은 기준이 부과되었다고 지각하면서 비현실적인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각하는 타인의 기준과 실제의 자기모습 사이에서 불일치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들은 외부의 높은 기준과 현재의 자기상을 비교하면서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한 실패감과 분노, 무망감 등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우울, 자살사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자기불일치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이 지각한 외부의 기준과의 불일치 등 다양한 기준 간의 불일치로 볼 때, 이는 편견을 유발하는 요인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Gaertner와 Dovidio (1986), Katz와 Hass(1988)는 자신들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상충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으로 인하여 편견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미국에서 나타나는 소수집안에 대한 편견이나 양가감정적 태도 또는 염오적 인종주의 태도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백인들이 갖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평등주의적 가치가 상충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불안한 감정 때문이라는 것이다(양계민, 2010). 따라서 높은 수준의 자기불일치는 개인 내적인 불편감은 물론, 부정적인 정서 경로를 통하여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영수, 신희천, 2012), 이로 인해 편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 상정하고 있는 '외적 동기'란 편견을 갖지 않는 데 대한 외적 동기를 의미한다. Plant와 Devine(1998)은 편견을 갖지 않는 것에는 스스로가 설정한 내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외적인 동기 또한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미국에서 많은 백인들은 자신들이 편견이 있다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간접적이면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편견을 표현한다는 것이다(Crosby, Bromley, & Saxe, 1980; Gaertner & Dovidio, 1986; McConahay, 1986; Sears & Kinder, 1985). 개인의 편견이나 자기제시, 사회적 평가에 대한 반응

www.kci.go.kr

등은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면의 또 다른 동기들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깊은 내면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동기들을 분명히 고려할 때, 이들의 태도가 중요한 타인에 의해 그래야 한다고 규정된 행동에 반응한 것인지, 스스로 규정한 행동에 근거하여 적절한 행동규준을 설정한 것인지 그 특성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Devine et al., 1991; Higgins, 1987). 이를 통해 볼 때, 타인이 부과한 기준과 자신이 설정한 기준 간의 불일치가 큰 개인은 스스로 행동 규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부과한 규준에 의해 동기화되었기 때문에 외적 동기가 클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외적 동기는 완벽주의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은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지각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촉진하고 불완전하게 지각된다고 생각되는 행동은 은폐하려는 특성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들은 자신이 타인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조차 은폐하고자 할 것이다. 이들이 나타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는 자기 확신과 가치에 토대를 두기 보다는 타인의 가치와 평가에 의해 동기화된다는 점에서 외적 동기에 근거할 것이며, 이것이 결국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즉,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상호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이들 완벽주의가 모두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기불일치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불일치는 편견과 외적 동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다. 또한,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자기불일치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편견과 외적 동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완벽주의, 자기불일치, 편견, 외적 동기,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을 검증해보고자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타인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서 그 과정으로 자기불일치, 편견, 외적 동기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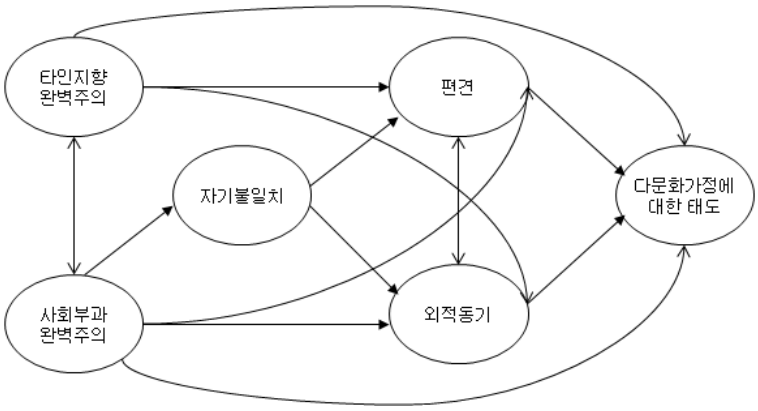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www.kci.go.kr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B 지역에 위치한 A사이버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전공 선택 강좌를 수강중인 학부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611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도 3월에 사이버 수업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전공은 총 8개 전공 이상으로 다양하였다. 실시 이전에 강의를 듣는 참여자들에게 협조를 요청 메일을 안내하고 동의를 구한 후 자발적으로 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에서 설문을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답은 가급적 한 번에 실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응답한 질문지는 자동으로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저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한 학생들은 총 43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총 431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20살에서 63세까지의 남자 66명(15.3%), 여자 365명(84.7%)이었으며, 전체 평균연령은 37.46(SD:8.79)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는 111명(25.8%), 30대 158명(36.6%), 40대 127명(29.5%), 50대 이상이 35명(8.1%)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는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한기연(1993), 홍혜영(1995) 등이 이 질문지를 번역하고 김연수(1998)가 이를 재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귀인하는 방향에 따라서 완벽주의를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차원으로 분류되며, 이들 각각의 하위차원들은 각각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문항은 4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 시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만 사용하였다. Hewitt과 Flett(1991) 연구에서 척도의 세 요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82, .86, 87이었고, 본 논문에서의 이들 세 가지 요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84, .83, .87로 나타났다.

자기불일치 척도(Self-Discrepancies Scale)

자기불일치 정도를 측정하고자 서수균(1996)이 Higgins, Bond, Klein 및 Strauman(1986)의 자기질문지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새롭게 구성하여 타당화 검증을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2문항의 형용사 쌍의 9점 척도로 구성된 것으로, 세 가지 자기 영역(실제자기, 당위자기, 이상자기)과 두 가지 관점(자신관점-타인관점)을 조합한 6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 불일치 정도는 대응되는 각 문항별 점수 차이의 절대값을 22문항에 걸쳐서 모두 합해서 계산한다(예. '실제/자신'과 '이상/자신' 간에 대응되는 22개의 문항별 점수 차이의 절대 값들의 합은 자신의 관점에서의 이상적 자기불일치(자기불일치/자신)를 나타냄).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불일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실제/자신'과 '이상/자신'의 문항들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서수균의 연구에서의 신뢰도(1996)는 '실제/자신'이 .85, '이상/자

www.kci.go.kr

신'이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89, .88로 나타났다.

편견 척도(Prejudice Scale)

인종 및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기 위하여 원은경(2008)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은경(2008)은 유네스코의 국제 이해교육의 내용과 Kendall(1983)이 정의한 문화개념을 기초로 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지 및 감정적 검사도구로서 형용사 척도를 선정하였고, 행동적 영역은 Bogardus (1967)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인종'의 문항은 제외하고 '다문화'에 대한 질문 문항으로만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동남아시아 문화권, 백인문화권, 흑인문화권 각각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7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화에 대해 편견을 크게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났다.

편견을 갖지 않는 데 대한 내외동기 척도(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to Respond without Prejudice Scale: IMS, EMS)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한 내적 동기/외적 동기를 측정하고자 Plant와 Devine (1998)이 개발한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to Respond without Prejudice Scale을 본 연구자와 관련 전공자들이 함께 번안하였다. 원 척도는 흑인에 대한 편견에 있어서의 외적 동기 및 내적 동기를 측정한 것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에 있어서의 외적 동기 및 내적 동기로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문항은 외적 동기, 5개 문항은 내적 동기로 구성된다. 외적 동기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만일 내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타인들이 나에게 화를 낼 것 같아서 염려된다." 등이 있으며, 내적 동기에 대한 문항의 예로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개념을 위해서 중요하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9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동기/외적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적 동기만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Plant와 Devine (1998)의 논문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세 개의 분석 결과 내적 동기는 각각 .85, .84, .81이었고, 외적 동기는 .79, .76, .80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의 외적 동기의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척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Yuker와 Block(1986)이 개발한 'Attitudes toward Disabled Scale'을 본 연구자와 관련 전공자들이 함께 번안하였으며, 원 척도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것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6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사람들은 다른 이들만큼 야망이 있다.",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비위에 거슬린다." 등이 있다. Yuker와 Block(1986)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7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SPSS를 이용하여 먼저 전체 변인들의 왜도와

www.kci.go.kr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3.0을 넘는 측정변수가 나타나지 않았고, 첨도 또한 7.0을 넘는 측정변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측정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전체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들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모델을 먼저 추정하고 그 다음으로 구조모델을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Russel, Khan, Spoth와 Altmaier(1998)의 권유에 따라, 하위차원이 없는 척도에 대하여 각 척도 별로 요인을 1개로 지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도록 문항을 묶어 각 문항 꾸러미에 할당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적합지수로서 x^2/p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절대적 적합지수의 지표로 사용하였고,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부합도 평가를 위하여 비표준 적합지수 TLI와 비교적합도 CFI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x^2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매우 적합한 모형이지만, x^2의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x^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더라도 TLI와 CFI가 .90 이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가 .08보다 작으면 모형을 양호한 것으로 해석한다(MacCallum et al., 2001).

연구결과

완벽주의, 자기불일치, 외적 동기, 편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 및 기초통계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기초분석으로 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간 상관을 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인 타인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기불일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록 자기불일치 수준이 높아진다는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타인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외적 동기와도 대체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줌으로써, 이들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일수록 타인이나 외부의 가치평가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 = 431)

		1	2	3	4	5	6
1	타인지향 완벽주의	-	.53***	.21**	.16**	.15**	.20***
2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	.31***	.25***	.14**	.22***
3	자기불일치			-	.19***	.04	.03
4	다문화 가정에 대한 외적 동기				-	.20***	.45***
5	편견					-	.33***
6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
	평균	2.90	2.77	2.72	3.57	3.28	2.92
	표준편차	.41	.41	1.58	1.67	.33	.52

*p < .05, **p < .01, ***p < .001

www.kci.go.kr

와 같은 외적인 이유로 인해 편견을 갖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타인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편견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타인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록 다문화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편견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타인지향 완벽주의 및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이들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일수록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완벽주의의 하위변인인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불일치, 외적 동기, 편견,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문항 꾸러미를 통해 만들어진 관측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가설모형 검증 결과

측정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의 측정모형을 검증하는 방법, 즉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 변인 전체의 측정 모형을 검증하였다(이학식, 임지훈, 2007). 그 결과 x^2(N=431, df=50)은 77.19(p

표 2.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 = 431)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완벽주의	1. 타인지향 완벽주의 1	-	.57***	.41***	.35***	.21***	.17***	.11*	.09	.07	.11*	.05	.11*	.12*
	2. 타인지향 완벽주의 2		-	.43***	.51***	.19***	.13**	.18***	.15**	.11*	.17***	.13**	.23***	.19***
	3. 사회부과 완벽주의 1			-	.65***	.26***	.29***	.19***	.17***	.12*	.16**	.13**	.18***	.16**
	4. 사회부과 완벽주의 2				-	.28***	.25***	.24***	.22***	.13**	.13**	.01	.21***	.18***
자기불일치	5. 자기불일치 1					-	.72***	.12*	.12***	.08	.05	.02	.02	.01
	6. 자기불일치 2						-	.21***	.19***	.09	.08	.02	.04	.00
다문화 가정에 대한 외적 동기	7. 외적동기 1							-	.75***	.17***	.28***	.09	.40***	.43***
	8. 외적동기 2								-	.12*	.20***	.07	.36***	.36***
편견	9. 편견_인지									-	.53***	.3***	.30***	.28***
	10. 편견_감정										-	.50***	.32***	.32***
	11. 편견_행동											-	.19***	.14**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12. 다문화태도1												-	.76***
	13. 다문화태도2													-
	평균	2.97	2.83	2.70	2.84	1.27	1.45	3.62	3.50	2.97	3.25	3.49	2.88	3.13
	표준편차	.49	.45	.43	.47	.77	.93	1.69	1.93	.31	.40	.52	.58	.57
	왜도	-.02	.13	.10	.08	1.26	1.39	.13	.30	-.00	.43	.15	-.27	-.45
	첨도	.01	.12	.32	.67	2.73	3.89	-.51	-.67	.85	.93	.23	.10	.35

*p < .05, **p < .01, ***p < .001

www.kci.go.kr

<.01), CFI는 .97, TLI는 .98, RMSEA는 .03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모형이 타당한 모형임이 증명되었다.

경로 모형 검증

완벽주의의 하위변인인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 이르는지에 대하여 자기불일치, 외적 동기, 편견의 변인들과 경험적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을 통해 연구모형을 살펴보았을 때, CFI와 TLI 및 RMSEA의 적합도 지수 값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모형에서 가정한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자기불일치, 외적 동기,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08, *n.s.*; .03, *n.s*; .12, *n.s*),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편견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간의 관련성 역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09, *n.s.*; .01, *n.s*). 따라서 이들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제거하고 수정된 모형을 토대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볼 때에도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였고, x^2의 차이 비교에서도 수정된 모형이 더 간 간명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최종모형에 대해 변수들의 모수를 추정해 보고, 관련 변인들의 직접, 간접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그림 2와 표 4, 표 5에 제시하였

표 3. 연구모형과 수정모형 간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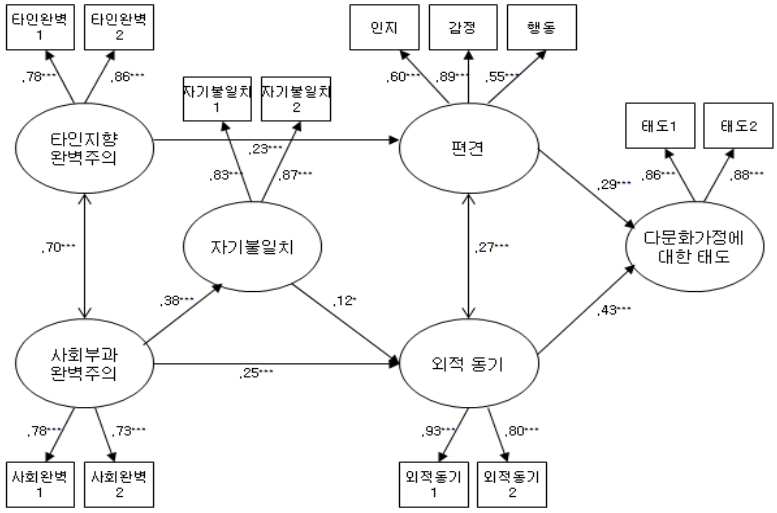
	x^2	*df*	*p*	CFI	TLI	RMSEA (90%신뢰구간)
연구모형	85.133	52	.00	.97	.97	.04(.02～.05)
수정모형	91.099	57	.00	.98	.98	.04(.02～.05)

표 4. 모수의 추정치, 표준오차 및 검정통계량

측정변인 간 경로계수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S. E.)	검정통계량 (C. R)
타인지향 완벽주의 ↔ 사회부과 완벽주의	.08	.70***	.01	7.54
외적동기 ↔ 편견	.22	.28***	.05	4.28
사회부과 완벽주의 → 자기불일치	.74	.38***	.12	5.99
사회부과 완벽주의 → 외적동기	1.18	.25***	.29	4.05
자기불일치 → 외적동기	.31	.12*	.15	2.11
타인지향 완벽주의 → 편견	.40	.23***	.11	3.67
외적동기 →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13	.43***	.02	7.30
편견 →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26	.29***	.05	5.12

*p < .05, **p < .01, ***p < .001

www.kci.go.kr



$^{*}p < .05$, $^{**}p < .01$, $^{***}p < .001$

그림 2. 최종모형의 경로도

다. 그림 2에서 직선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값을 의미한다.

그림 2와 표 4를 통해 볼 때,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편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편견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23, $p < .001$; .29, $p < .001$), 타인지향 완벽주의 성향 그 자체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기불일치 및 외적 동기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38, $p < .001$; .25, $p < .001$), 자기불일치 또한 외적 동기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12, $p < .05$). 아울러, 외적 동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43, $p < .001$). 이를 통해 볼 때,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록 외부 평가와 같은 외적인 동기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으며, 이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록 자기불일치 정도를 크게 지각하였고, 자기불일치 수준이 커짐에 따라 더욱 더 외적인 동기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으려 하는 태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준 변인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볼 때 자기불일치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설명양은 10.1%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적 동기에 대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불일치의 설명양은 7.6%로 나타났으며, 편견에 대한 타인지향 완벽주의의 설명양은 2.2%였다. 마지막으로,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자기불일치, 외적 동기, 편견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설명하는 양은 28.0%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운데, 특히 외적 동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편견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음을

www.kci.go.kr

표 5. 기준변인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효과

기준변인	예측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R^2
자기불일치	사회부과 완벽주의	.38	-	.38	.101
외적동기	사회부과 완벽주의	.25	.05	.29	.076
	자기불일치	.12	-	.12	
편견	타인지향 완벽주의	.23	-	.23	.022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	타인지향 완벽주의	-	.07	.07	.280
	사회부과 완벽주의	-	.13	.13	
	자기불일치	-	.05	.05	
	외적동기	.43	-	.43	
	편견	.29	-	.29	

발견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완벽주의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 편견, 외적 동기가 어떠한 과정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 가운데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모두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커질수록 편견적 태도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선행연구(하정희, 2013)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정희(2013)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비난, 타인에 대한 신뢰감 부족, 타인에 대한 적대감 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Hewitt & Flett, 1991, 하정희, 2013, 재인용). 이들은 완벽함의 기준이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있으며, 외부자극으로 인해 부정정서까지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불안이나 실패감을 자주 경험하며(유성은, 권정혜, 1997, 하정희, 2013, 재인용)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나타내고,(Hewitt & Flett, 1991, 하정희, 2013, 재인용), 타인의 승인과 인정에 집착하여 외로움, 사회적 무망감, 적대감, 결혼 생활 불화 등의 다양한 관계적 문제들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전명임, 이희경, 2011, 하정희, 2013, 재인용). 이러한 대인 관계적인 문제들의 이면에는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타인을 평가할 때 역시 완벽주의적인 타인의 잣대로 내면화된 기준을 토대로 하여 사회적 소수자를 평가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외적으로 불완전해 보이기 쉬운 다문화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www.kci.go.kr

둘째,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각각 다른 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통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역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불일치, 외적 동기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록 외부의 평가를 의식하여 편견을 갖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려 할 것이며, 이러한 외적 동기가 클수록 다문화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외적동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불일치를 통해 외적동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록 실제 자기 모습이 타인이 설정한 완벽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타인의 기준과 자신의 기준 사이에 불일치가 크다는 것은 개인이 어떤 태도를 형성할 때 자기 스스로가 설정한 행동에 근거하기 보다는 타인이 부과한 규준에 의해 더 크게 동기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이들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설정한 기준이 아니라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 편견을 나타내지 않으려 한 것이다.

한편,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모두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기 보다는 여러 심리적 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완벽주의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간에 이론적인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유의한 상관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하나의 이유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모형에서 가정한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외적동기간의 직접 경로는 최종모형에서 삭제되었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난하는 특성을 갖는 차원이다(Hewitt & Flett, 1993). 타인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은 '타인비난, 타인에 대한 신뢰부족, 타인에 대한 적대감' 등의 특성이 강하다(이현미, 2013).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평가받을까 염려하여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응답하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 동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완벽주의 및 자기불일치, 편견 관련 변인을 함께 고려한 경우,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는 완벽주의와 같은 성격 관련 변인보다는 편견, 외적동기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내적인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비난이나 부정적 평가를 염려하여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면, 이들이 겉으로는 편견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편견을 크게 가지고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An 등(2010)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내적동기가 아닌 외적 동기에 근거하여 편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큰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편견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으로 표현된다. 이에 편견

www.kci.go.kr

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낮은 호감도와 낮은 신뢰도, 사회적 거리감을 형성하여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을 고려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했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나 자기불일치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편견과 외적동기에 중간 이상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들 변인들 역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함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우선 완벽주의적 성격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특성을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었다. 지금까지 완벽주의의 개념은 상당 부분 성취 중심적으로 이해되었고, 최근 들어서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을 과시한다거나 공적으로 실수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은폐하는 등의 특성이 부각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특성이 사회적 소수집단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서,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왔던 권위주의적 성격특성과 더불어(민경환, 1989)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을 갖는 또 하나의 성격 변인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완벽주의와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적 소수집단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완벽주의 외에도 다문화가정에 영향 미치는 성격 변인에 대한 이론적인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완벽주의의 하위차원 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에 영향 미치는 과정이 각각 다르다는 결과를 통하여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그 자체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기불일치, 외적 동기 등의 내적인 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다문화 관련 교육과 상담 종사자들은 완벽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과정을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등의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각각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활용에 이러한 특성들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타인지향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선 자신이 스스로에게 설정한 완벽함의 기준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타인이 자신에게 부과한다고 여기는 완벽함의 기준을 점검함은 물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자유롭지 못한 개인적인 특성들을 충분히 다루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특성들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까지 영향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그 특성상 평균 연령이 37.46으로 연령 분포가 다양하다. 이에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한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의 성비 또한 남자 66명(15.3%), 여자 365명(84.7%)으로서 연구 결과에 있어서 남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남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추후에는 남녀 비율을 맞추어 본 연구결과에 대한 성별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www.kci.go.kr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수 (1998). 성취관련 스트레스 경험 후 완벽주의와 자존감이 우울발생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김영수, 신희천 (2012). 자기불일치가 대인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2), 745-760.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민경환 (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박수미, 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0(1), 5-26.

서수균 (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개념 및 자기안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 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양계민 (2010).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지닌 가치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1), 85-106.

원은경 (2008). 다인종과 다문화에 대한 일반 학생의 긍정적 태도 함양을 위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유성은, 권정혜 (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67-84.

이수란, 이동귀 (2008). 자존감의 영역별 수반성과 자기 평가 간 불일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13-335.

이현미 (2013). 완벽주의와 다문화태도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한양사이버대학교.

전명임, 이희경 (2011).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1), 67-83.

정기선 (1999).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연구. 통일문제 연구, 11(1), 173-189.

석현호 외 (2003).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접촉, 사회적 거리감과 인상변화.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하정희 (2006). 비합리적 사고와 완벽주의의 기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하정희 (2012).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이 자기구실 만들기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2), 367-386.

하정희 (2013). 사이버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의 관계: 인상관리의 조절효과. 사이버교육 연구, 7(1), 1-17.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An, S. H., Ha, J. H., Lee, J. H., & Seo, M. (2010).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Attitude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118th Annual Convention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Diego, California, Poster Presented on August, 12-15.

www.kci.go.kr

Bogardus, E. S. (1967) *A Forty-Year Racial Distance Study*.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Crosby, F., Bromley, S., & Saxe, L. (1980). Recent unobtrusive studies of Black and Whit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 literatur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7*, 546-563.

Devine, P. G., Monteith, M. J., Zuwerink, J. R., & Elliot, A. J. (1991). Prejudice with and without comp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17-830.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Mosher, S. W. (1991). Perfectionism, self-actualization and person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5), 147-160.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O'Brien, S. (1991).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 61-68.

Flett, G. L., Hewitt, P. L., & DeRosa, T. (1996). Dimensions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s, 20*, 143-150.

Gaertner, S. L., & Dovidio, J. F.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 F. Dovidio Diego, CA: Academic and S. L., 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61-89). San Press.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1), 58-65.

Hewitt, P. L., Flett, G. L., Turnbull-Donovan, W., & Mikail, S. F. (1991).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Reliability,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in psychiatric samples. *Psychological Assessment, 3,* 464-468.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Higgins, E. T., Bond, R. N., Klein, R., & Strauman, T. J. (1986).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How magnitude, accessibility, and type of discrepancy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5-15.

Katz, I. (1960).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 163-204.

Katz, I.,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Kendall, F. E. (1996). *Diversity in the classroom: New approaches to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th.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Leong, Chan-Honng. (2008). A multilevel research frame work for the analyses of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e Relations, 32*, 115-129.

McConahay, J. B. (1986). Modern racism, ambivalence, and the Modern Racism Scale. In J. F. Dovidio & S. L. Gaertner (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91-126). San Diego, CA: Academic Press.

Pacht, A. R. (1984). Reflection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www.kci.go.kr

Plant, E. A., & Devine, P. G. (1998).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to respond without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811-832.

Russell, D. W., Jeffrey, H., Kahn, Richard Spoth,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Saboonchi, F., & Lundh, LG. (1997). Perfectionism, self-consciousness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 921-928.

Sears, D. O., & Kinder, D. R. (1985). Whites' opposition to busing: On conceptualizing and operationalizing group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141-1147.

Shahar, G., Blatt, S. J., Zuroff, D, C., & Pilkonis, P. A. (2003). Role of perfectionism and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response to brief treatment for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3), 629-633.

Yuker, H. E., & Block, J. R. (1986). *Research with the attitude toward disabled persons scales (ATDP) 1960-1985*. Hofstra University, Hempstead, NY.

원고 접수일 : 2013. 10.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3. 12. 13.
게재 결정일 : 2013. 12. 21.

www.kci.go.kr

상 담 학 연 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3, Vol. 14, No. 6, 3557-3574

Verific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Attitudes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to Perfectionism, Self-Discrepancy, Prejudice, External Motivation

Ha, Jung-Hee

Hanyang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on attitudes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explore whether factors such as self-discrepancy, prejudice, external motiva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attitudes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is study, 432 cyber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ub-factors of the perfectionism, other oriented perfectionism and socially oriented perfectionism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ttitudes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indicated that prejudice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other oriented perfectionism and attitudes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other hand, self-discrepancy, prejudice, external motiv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oriented perfectionism and attitudes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Finally, predictors including prejudice, external motivation accounted for attitudes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well. Implications of the present findings for future research on perfectionism and for counseling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in working clients were discussed.

Key words : perfectionism, attitudes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self-discrepancy, prejudice, external motivation

www.kci.go.kr